

## 강도 범죄의 실태 및 대구 지역 침입 강도 범죄 분석

이상호\*, 곽정식

대구지방경찰청\*,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 Actual Conditions of Burglaries and Analysis on Residential Invasion Burglaries in Daegu Area

Sang Ho Lee\*, Jyung Sik Kwak

*Daegu Metropolitan Police Agency\*,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bstract** – During the period from 2001 to 2005, 29,892 burglaries took place in Korea with the approximate average annual number – 5,978 cas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ported burglaries and the result was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ere 8,605 residential invasion burglaries (28.8%) as the most frequent characteristic pattern. The exit was used as the most frequent invasion route for 4,031 invasion burglaries (64.3%), and an unlocked exit door or window was used as the most frequent invasion method for 2,462 invasion burglaries (28.6%). The hours just after midnight (between 00:00 and 04:00) were the most frequent time for invasion burglary to occur. Also, 5,652 burglaries occurred on Wednesday which was twice higher than on Sunday (2,988 burglaries). It was shown that the number of persons injured during burglaries were 260 deaths and 10,610 injuries. The places of the highest occurrence were the street with 10,183 burglaries (34%) and then residential place with 7,527 burglaries (approximately 25%). One-man burglary was the highest complicity: 15,012 offenders (56.1%). The knife was used as the most frequent instrument for 6,498 burglaries (24.3%) what is rare, while no criminal tool or instrument was used for 15,631 burglaries (58.4).

During the period from 2001 to 2006, 1,506 burglaries occurred in Daegu and the average annual number was 251 burglaries. Among those, 515 residential invasion burglaries (34.2%) took place and the average annual number was approximately 86 cases. The hours just after midnight (between 00:00 and 04:00) were the most frequent time for invasion burglary to occur (194 cases, 37.7%), the place of the highest invasion occurrence was the residential place (259 cases, 50.3%), and the exit was used as the

---

Corresponding author: Jyung Sik Kwak, M.D., Ph.D.

Tel : 053-420-4885, Fax : 053-422-4712

jskwak@knu.ac.kr

most frequent invasion route (87 cases, 37.7%). An unlocked exit door or window was the most frequent invasion method (65 cases, 25.1%). In addition, pretending to be a delivery man, visitor or following the victim methods were used for 26 burglaries (10%).

It is apparent that personal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rimes, as well as governmental and social measure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burglaries. In particular, based on the analyzed result that an unlocked window or exit door was most frequently used for reported burglaries, it seems that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f crime prevention while little effort has been made to prevent crimes. Although everyone knows that locking a door is one of the basic measures to prevent crimes, many people tend to pay little attention to lock a door properly so burglary takes place. This study, therefore, is intended to encourage people to pay more careful attention to crime prevention, in order to help reduce the probability of burglary. With the recent improvement in social understanding of scientific crime investigation, a wide variety of police professions, including crime analysts, crime victim police counselors and coroners, have been prepared to develop the scientific crime investigation and crime analysis.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further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ncourage studies on crime prevention to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Keywords** : burglary, residential invasion, prevent crime

## I. 서론

200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총 1,733,122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790,847건(45.6%)이 형법범이었고, 나머지 942,275건(54.4%)이 특별범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790,847건의 형법범 중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종의 범죄를 포함)는 15,271건(약2%)이 발생하여 하루평균 약 42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강도범죄는 5,170건이 발생하여 하루 약 1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통하여 많

은 범죄를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 실제 및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면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것이다. 모든 범죄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수반하게 되는데, 범죄 피해는 (표 1)과 같이 일반적으로 가시적 피해(신체적 피해, 경제적 피해)와, 비가시적 피해(정신적 피해, 사회적 피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sup>2)</sup>, 각 범죄는 그 범죄 특유의 피해가 발생하겠으나, 그 중에서도 강도범죄 피해자는 가시적, 비가시적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1. 일반적인 범죄피해 분류

가시적(직접) 피해		비가시적(간접) 피해	
신체적 피해	경제적 피해	정신적 피해	사회적 피해
폭력에 의한 육체적 고통, 외모의 손상 및 불구 등	재물손괴, 현금이나 물품피해, 부상에 따른 소득감소 등	충격으로 인한 공포, 분노, 자책감, 무력감, 우울증 등	행동의 위축, 이사, 이웃으로부터의 외면 등 사회활동 장애

강도범죄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면, 강도는 살인, 강간과 더불어 전통적 범죄로 분류<sup>3)</sup>(전통적 범죄에는 살인, 강간, 강도를 포함, 특수범죄에는 조직범죄, 화이트칼라범죄, 정치범죄, 피해자없는 범죄를 포함)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강력범죄의 대표격으로 하루 평균 약 16건이 발생<sup>4)</sup>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형법에 의하면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33조), 또 강도죄는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산죄이므로 강도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으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자유권, 즉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도 강도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강도죄는 재산죄와 폭행 또는 협박죄의 결합범이며, 강도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자유권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강도범죄에는 여러 유형이 포함되는데, 현행형법은 단순강도죄를 강도죄의 기본구성요건으로 하여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 인질강도죄, 해상강도죄, 상습강도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상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준강도, 강도에비·음도,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강도범죄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더욱 지능화, 광역화, 흉포화되고 있고, 그 피해자는 일반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피해 또한 타범죄에 비해 상당히 심각함에도 이에 대한 특성이나 예방책 등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따라서 통계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강도범죄와, 대구지역 침입강도범죄의 실태를 분석·연구함으로써 강도범죄 예방과 강도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정책적·사회적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 하였다.

## II. 재료 및 방법

전국 강도범죄 및 대구지역의 침입강도범죄(‘침입강도’범죄는 형법상의 죄명에 의한 분류가 아니고 강도범죄행위에 의한 분류로서 형법상 강도범죄의 분류와는 구분되

는 개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발행한 최근 5년간(2001~2005)의 ‘범죄분석’ 연보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강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수법별, 시간대별 발생현황 등 최근 5년간(2001~2005) 발생한 강도범죄의 실태를 종합 분석하였고, 대구지역의 침입강도 범죄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자료를 토대로 최근 6년동안(2001~2006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1,506건의 강도범죄 중 침입강도범죄 515건에 대하여 지역별, 장소별, 시간대별, 주거(본 연구에서 ‘주거’의 개념은 사람이 거주하는 일반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을 포함)침입강도의 침입구 및 침입방법, 범행도구 등을 분석하여 전국의 침입강도범죄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III. 결 과

### 1. 전국 강도범죄 분석

#### 1) 전국 강력범죄 및 강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분석

경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76,497 건이 발생되었으며, 그 중 살인이 5,064 건(6.6%), 강간이 33,667 건(44.0%), 방화가 7,874 건(10.3%)으로 나타났고, 강도범죄는 강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9,892 건으로 전체 강력범죄의 39.1%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강력범죄 검거건수는 69,191 건으로써 90.4%의 검거율을 보였는데, 이 중 강도범죄 검거건수는 26,751 건으로써 발생대비 89.5%의 검거율을 보였다(표 2).

같은 기간 동안 시·도별 강도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9,982건으로 전체의 33.4%, 경기도가 5,849 건으로 19.6%, 충남(대전광역시 포함)이 2,407 건으로 8.1%, 부산이 2,065 건으로 6.9%, 전남(광주광역시 포함)이 1,915 건으로 6.4%, 인천이 1,520 건으로 5.1%, 대구가 1,299 건으로 4.3%, 경남이 1,259 건으로 4.2%, 경북이 1,027 건 3.4%였으며, 충북 646 건, 울산 582 건, 전북 569 건, 강원 473 건, 제주도 280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8 강도 범죄의 실태 및 대구 지역 침입 강도 범죄 분석

표 2. 전국 강력범죄의 연도별 발생 및 검거 현황 (2001~2005).

죄명별	구 분	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검거율(%)	검거인원(명)
살 인	계	76,497	69,191	90.4	71,341
	소계	5,064	5,088	100.5	5,594
	2001	1,051	1,076	102.4	1,171
	2002	957	994	103.9	1,051
	2003	998	1,038	104.0	1,085
	2004	1,083	1,041	96.1	1,200
강 도	2005	975	939	96.3	1,087
	소계	29,892	26,751	89.5	29,520
	2001	5,692	4,670	82.0	5,547
	2002	5,906	5,957	100.9	5,453
	2003	7,292	7,165	98.3	6,970
	2004	5,832	4,937	84.7	6,466
강 간	2005	5,170	4,022	77.8	5,084
	소계	33,667	30,204	89.7	29,293
	2001	6,751	6,021	89.2	5,584
	2002	6,119	5,522	90.2	5,136
	2003	6,531	5,899	90.6	5,425
	2004	6,950	6,321	90.9	6,481
방 화	2005	7,316	6,441	88.0	6,667
	소계	7,874	7,148	90.8	6,934
	2001	1,364	1,233	90.4	1,220
	2002	1,371	1,288	93.9	1,135
	2003	1,698	1,539	90.3	1,417
	2004	1,631	1,507	92.4	1,546
2005	1,810	1,581	87.3	1,616	

표 3. 전국 강도범죄 시·도별 발생 현황.

(단위 : 건(발생순위))

지역별 연도별	계	서울 (1)	부산 (3)	대구 (7)	인천 (6)	울산 (12)	경기 (2)	강원 (13)	충북 (10)	충남 (4)	전북 (11)	전남 (5)	경북 (9)	경남 (8)	제주 (14)
계	29,873	9,982	2,065	1,299	1,520	582	5,849	473	646	2,407	569	1,915	1,027	1,259	280
2001	5,687	1,874	426	252	249	109	1,174	84	108	526	107	356	172	197	53
2002	5,898	2,134	391	267	327	102	1,012	95	127	459	86	378	219	262	39
2003	7,288	2,841	519	271	315	122	1,269	96	134	616	106	463	220	273	43
2004	5,830	1,655	394	267	334	141	1,308	104	143	399	130	435	214	236	70
2005	5,170	1,478	335	242	295	108	1,086	94	134	407	140	283	202	291	75

※ 해양경찰청 강도범죄 발생은 통계에 미포함

2) 강도범죄 수법별 발생 및 검거현황 분석

강도범죄의 수법별 발생현황은 (표 4)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2001~2005) 발생한 전체 강도범죄(29,892 중 침입강도가 8,605 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노상강도6,509 건(21.8%), 강도강간 1,459 건(4.9%), 인질강도943 건(3.2%), 차내강도 842 건(2.8%), 차량이용강도 790 건(2.6%)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절도범죄자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협박을 가함으로써 강도범죄자로 되거나,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인해 채권을 확보하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협박을 가함으로써 강도죄로 이어지는 등 수법

분류가 어려운 기타 수법의 강도범죄가 10,333 건(34.6%)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의 검거율은 (표 5)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29,892 건이 발생되어 26,751 건이 검거됨으로써 89.5%의 검거율을 보였으며, 이를 수법별로 살펴보면 침입강도는 8,605 건 발생에 6,271 건이 검거되어 72.9%, 노상강도는 6,509 건 발생에 6,066 건이 검거되어 93.27%, 강도강간은 1,459 건 발생에 1,271 건이 검거되어 87.1%의 검거율을 보였다.

표 4. 전국 강도범죄 연도별·수법별 발생현황. (단위 : 건(%))

연도별 \ 수법별	계	침입강도	노상강도	차내강도	해상강도	차량이용강도	약취강도	마취강도	인질강도	강도강간	기타
계	29,892 (100)	8,605 (28.8)	6,509 (21.8)	842 (2.8)	12 (0.0)	790 (2.6)	270 (0.9)	129 (0.4)	943 (3.2)	1,459 (4.9)	10,333 (34.6)
2001	5,692	1,677	1,295	211	1	133	59	35	138	343	1,800
2002	5,906	1,305	1,363	179	3	189	52	17	243	407	2,148
2003	7,292	1,615	1,581	215	4	219	71	44	254	411	2,878
2004	5,832	1,990	1,308	120	4	123	58	26	176	181	1,846
2005	5,170	2,018	962	117		126	30	7	132	117	1,661

표 5. 전국 강도범죄 연도별·수법별 검거현황. (단위 : 건(검거율 %))

연도별 \ 수법별	계	침입강도	노상강도	차내강도	해상강도	차량이용강도	약취강도	마취강도	인질강도	강도강간	기타
계	26,751 (89.5)	6,271 (72.9)	6,066 (93.2)	727 (86.3)	13 (108.3)	771 (97.6)	285 (105.5)	109 (84.5)	1,061 (112.5)	1,271 (87.1)	10,177 (98.5)
2001	4,670	1,088	1,206	183	3	117	79	26	149	231	1,588
2002	5,957	1,080	1,439	174	3	202	64	10	295	397	2,293
2003	7,165	1,236	1,586	184	3	239	63	42	320	394	3,098
2004	4,937	1,512	1,109	98	4	108	53	25	174	149	1,705
2005	4,022	1,355	726	88		105	26	6	123	100	1,493

3) 강도범죄의 시간대별 발생현황 분석

강도범죄의 시간대별 발생현황은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강도범죄 중 가장 많은 8,958건(30.0%)이 심야시간대인 00:00~04:00사이에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밤시간대인 20:00~24:00사이에 4,403 건, 오후시간대인 12:00~18:00사이에 4,374 건, 오전시간대인 07:00~12:00사이에 3,439 건, 저녁시간대인 18:00~20:00사이에 1,764 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강도범죄의 요일별 발생현황 분석

강도범죄의 요일별 발생현황은 (표 7)과 같이 수요일이 5,652 건(19.0%)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월요일 4,262 건, 화요일 3,907 건, 금요일 3,709건, 목요일 3,665 건, 토요일 3,129 건 순이었으며, 일요일은 2,988 건(10.0%)으로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강도범죄 피해자의 신체피해현황 분석

강도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표 8)과 같이 모두 10,870 명 이었으며, 이 중 상해 피해자가 10,610 명(97.6%)이었고, 사망이 260 명(2.4%)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상해는 남자가 5,541 명(52.2%),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적은 5,069 명(47.8) 이었으며, 사망은 남자 130명, 여자 130명으로 같은 수치를 보였다.

상해 피해자의 상해정도(상해피해자 10,610 명 중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8,723 명을 상대로 분석)를 살펴본 결과 (표 9)와 같이 전치 2주 이하가 전체의 72.2%인 6,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치 1개월 이하 2,027 명, 전치 2개월 이하 292 명, 전치 4개월 이하 70 명, 전치 6개월 이하 14 명, 전치6개월 이상 23 명으로 나타났다(표 9).

표 6. 전국 강도범죄 연도별·시간대별 발생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시간별 계	심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밤	미상
		(00:00 ~04:00)	(04:00 ~07:00)	(07:00 ~12:00)	(12:00 ~18:00)	(18:00 ~20:00)	(20:00 ~24:00)	
계	29,892 (100)	8,958 (30.0)	3,088 (10.3)	3,439 (11.5)	4,374 (14.6)	1,764 (5.9)	4,403 (14.7)	3,866 (12.9)
2001	5,692	1,711	406	694	809	319	717	1,036
2002	5,906	1,712	425	712	717	309	715	1,316
2003	7,292	1,910	514	884	1,054	447	969	1,514
2004	5,832	1,915	875	620	967	370	1,085	-
2005	5,170	1,710	868	529	827	319	917	-

표 7. 전국 강도범죄 연도별·요일별 발생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요일별 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미상
		계	29,892 (100)	2,988 (10.0)	4,262 (14.3)	3,907 (13.1)	5,652 (19.0)	3,665 (12.3)	
2001	5,692	514	795	777	1,306	614	600	612	474
2002	5,906	441	953	710	1,285	650	676	442	749
2003	7,292	579	1,017	826	1,448	758	771	536	1,357
2004	5,832	771	838	836	864	833	858	832	-
2005	5,170	683	659	758	749	810	804	707	-

표 8. 전국 강도범죄 피해자의 연도별 신체피해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계	계			상 해		사 망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10,870 (100)	5,671 (52.2)	5,199 (47.8)	10,610 (97.6)	5,541 (51.0)	5,069 (46.6)	260 (2.4)	130 (1.2)	130 (1.2)
2001	2,415	1,253	1,162	2,379	1,232	1,147	36	21	15
2002	2,112	1,091	1,021	2,073	1,078	995	39	13	26
2003	2,603	1,289	1,314	2,550	1,260	1,290	53	29	24
2004	2,168	1,226	942	2,101	1,190	911	67	36	31
2005	1,572	812	760	1,507	781	726	65	31	34

표 9. 전국 강도범죄 피해자의 연도별 신체피해 정도. (단위 : 명(%))

연도별 \ 피해정도별	계	전치 2주이하	전치 1개월이하	전치 2개월이하	전치 4개월이하	전치 6개월이하	전치 6개월이상
계	8,723(100)	6,297(72.2)	2,027(23.2)	292(3.3)	70(0.8)	14(0.2)	23(0.3)
2001	2,063	1,558	434	51	13	1	6
2002	1,846	1,401	382	52	6	2	3
2003	2,430	1,787	540	77	17	2	7
2004	1,390	896	400	67	16	6	5
2005	994	655	271	45	18	3	2

표 10. 전국 강도범죄 연도별 발생장소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 장소별	계	아파트	단독	고속	노상	상점	시장	숙박	유흥집	사무실	공장	공사장
		연립	주택	도로				업소	객업소			
계	29,892	4,066	3,461	38	10,183	2,119	115	1,456	1,763	628	70	49
2001	5,692	980	651	10	1,903	357	30	215	249	100	15	9
2002	5,906	944	544	3	2,119	310	23	291	322	137	16	9
2003	7,292	1,049	601	11	2,544	468	24	375	472	184	12	8
2004	5,832	581	852	4	1,928	488	24	337	392	100	14	15
2005	5,170	512	813	10	1,689	496	14	238	328	107	13	8

  

연도별 \ 장소별	참고	역	기타	홍행장	유원지	학교	금융	의료	종교	산야	공지	기타	
		대합실	교통수단 내										
계	33	32	68	79	116	139	137	162	65	150	69	4,163	
2001	4	2	15	237	22	10	13	20	19	11	26	11	783
2002	8	6	14	212	3	11	45	21	32	6	24	23	783
2003	5	5	22	246	9	9	21	39	23	9	28	26	1,102
2004	9	12	11	22	25	47	34	40	44	18	27	4	804
2005	7	7	06	14	20	39	26	17	44	21	45	5	691

6) 강도범죄의 발생장소별 현황 분석

강도범죄의 발생장소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10)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노상에서 발생한 것이 10,183 건 (34.1%)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아파트, 주택)에서 발생한 것이 7,527 건(25.2%)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상점에서 2,119 건(7.1%), 유흥집객업소에서 1,763 건(5.9%), 목욕탕 및 숙박업소에서 1,456 건(4.9%)이 발생하였고, 그 외 기타 교통수단 내, 사무실, 시장노점, 공장, 금융기관, 의료기관, 학교, 유원지, 홍행장, 지하철, 역 대합실 등에서도 소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침입강도범죄의 침입구 및 침입방법 분석

같은 기간 동안 검거된 침입강도범죄 6,271 건에 대하여 침입구 및 침입방법을 분석한 결과 먼저 침입구는 (표 11)과 같이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것이 4,031 건(64.3%)으로 가장 많았고, 창문으로 침입한 것이 857건(13.7%), 담으로 침입한 것이 106 건(1.7%), 지붕과 비상구로 침입한 것이 각 4 건이었으며, 베란다 등 기타 장소로 침입하였거나 침입구를 알 수 없는 것이 1,269 건(20.2%)으로 나타났다.

침입방법은 (표 12)와 같이 문단속이 없는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것이 2,462 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열고 침입한 것이 553 건 (8.8%), 출입문이나 창문을 부수거나 깨고 침입한 것이 138

12 강도 범죄의 실태 및 대구 지역 침입 강도 범죄 분석

건(2.2%)이었으며, 방문자로 가장하거나, 피해자를 뒤따라 침입하는 등 기타가 3,118 건(49.7%)으로 나타났다.

26,751 명 중 단독범이 15,012 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2 명 4,797 건 (17.9%), 3 명 2,678 건(10%), 4 명 1,418 건(5.3%), 5 명 이상, 20 명 이하의 집단강도(속칭 떼강도)도 2,014 건(7.5%)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 강도범죄자의 공범관계 분석

강도범죄의 공범관계는 (표 13)과 같이 전체 강도범인

표 11. 전국 침입강도범죄의 연도별 침입구 분석. (단위 : 건(%))

연도별	침입구별	계	출입문	창문	담	지붕	비상구	기타
계		6,271(100)	4,031(64.3)	857(13.7)	106(1.7)	4(0.1)	4(0.1)	1,269(20.2)
2001		1,088	739	142	22	3	1	181
2002		1,080	712	168	25		2	173
2003		1,236	825	199	19	1		192
2004		1,512	870	189	18			435
2005		1,355	885	159	22		1	288

표 12. 전국 침입강도범죄의 연도별 침입방법 분석. (단위 : 건(%))

연도별	침입방법	계	문단속없음	시정장치 부수고	시정장치 열고	문부수고	유리깨고	기타
계		6,271(100)	2,462(39.3)	234(3.7)	319(5.1)	59(0.9)	79(1.3)	3,118(49.7)
2001		1,088	471	28	70	10	12	497
2002		1,080	439	29	66	5	7	534
2003		1,236	508	49	62	13	22	582
2004		1,512	533	70	44	17	15	833
2005		1,355	511	58	77	14	23	672

표 13. 전국 강도범죄자의 연도별 공범관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공범수별	계	단독	2명	3명	4명	5명	10명 이하	20명 이하	기타
계		26,751(100)	15,012(56.1)	4,797(17.9)	2,678(10.0)	1,418(5.3)	824(3.1)	907(3.4)	283(1.1)	832(3.1)
2001		4,670	2,708	871	509	244	125	134	36	43
2002		5,957	3,428	969	676	328	211	205	82	58
2003		7,165	3,926	1,332	816	432	208	267	64	120
2004		4,937	2,479	894	374	226	187	173	44	560
2005		4,022	2,471	731	303	188	93	128	57	51

표 14. 전국 강도범죄자의 범행도구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범구별		모의 총기	칼	도끼	낫	유리병	돌	몽둥이	공구	줄(끈)	마취제	독극물	컴퓨터	기타	소지무
	계	총기														
계	26,751 (100)	78	35	6,498 (24.3)	17	14	172	171	518 (1.9)	429 (1.6)	329	66	17	9	2,767 (10.3)	15,631 (58.4)
2001	4,670	13	1	1,056	4	4	31	28	107	35	27	15	1	1	372	2,975
2002	5,957	18	5	1,294	4	1	24	27	79	30	70	13			472	3,920
2003	7,165	15	11	1,422	2	3	35	39	106	50	50	22			577	4,833
2004	4,937	22	9	1,299	2	3	51	48	128	156	110	7	13	7	657	2,425
2005	4,022	10	9	1,427	5	3	31	29	98	158	72	9	3	1	689	1,478

표 15. 전국 강도범죄자 연도별 범죄경력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전과관계	계	전과없음	전과자									
				소계	1	2	3	4	5	6	7	8	9이상
계		29,520 (100)	9,631 (32.6)	19,889 (67.4)	3,929	2,943	2,429	1,978	1,705	1,366	1,199	948	3,392
2001		5,547	1,757	3,790	816	590	483	419	323	231	226	148	554
2002		5,453	1,617	3,836	729	566	463	390	342	298	231	192	625
2003		6,970	2,097	4,873	997	720	624	486	426	350	291	242	737
2004		6,466	2,389	4,077	797	618	490	369	338	265	252	183	765
2005		5,084	1,771	3,313	590	449	369	314	276	222	199	183	711

9) 강도범죄자의 범행도구 분석

강도 범죄자가 범행시 사용한 범행도구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으며 전체 범죄자 26,751 명 중 15,631 명(58.4%)이 범행시에 특별한 범행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가장 많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칼이 6,498 건 (24.3%)으로 가장 많았고, 몽둥이 종류가 518 건, 드라이버나 송곳 같은 공구류가 429 건, 줄이나 끈을 사용한 것이 329 건, 유리병 172 건, 돌 171 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총기 및 공기총, 엽총 등 총기류를 범행에 사용한 것도 113 건이 있었다.

10) 강도범죄자의 범죄경력 분석

강도범죄자의 범죄경력을 분석한 결과 (표 15)와 같이 전체 강도 범죄자의 67.4%인 19,889 명이 전과 1범 이상이었으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 32.6%인 9,631 명으로 나타났다.

11) 강도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분석

강도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타인이 절대다수인 21,118 명(71.5%)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 1,668 명, 거래상대방 416 명, 친구 332 명, 애인 229 명, 이웃 208 명, 친족 관계 168 명, 직장동료 165 명 등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강도범죄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6).

12) 강도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 분석

강도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는 (표 17)과 같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한 사람이 4,121 명(14.0%)이었고, 정신장애자가 191 명(0.6%)이 있었는데 이중 정신이상자가 75 명, 정신박약자가 14 명, 기타 정신장애자가 102 명으로 나타났으며, 월경시 이상 4 명을 제외한 절대 다수인 25,204 명 (85.4%)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강도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전국 강도범죄자의 연도별 피해자와의 관계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관계별	피 해 자														
		계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 동료	친구	애인	동거 친족	기타 친족	거래 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계		29,520 (100)	162	13	66	64	165	332 (1.1)	229	85	83	416 (1.4)	208 (0.7)	1,668 (5.7)	21,118 (71.5)	4,911 (16.6)
2001		5,547	53	3	10	10	14	47	33	21	12	63	54	300	4,190	737
2002		5,453	34	1	14	8	29	49	43	12	17	86	41	358	3,978	783
2003		6,970	35	4	8	19	47	53	63	26	18	131	49	468	4,988	1,061
2004		6,466	22	2	16	13	50	104	45	13	14	73	33	341	4,504	1,236
2005		5,084	18	3	18	14	25	79	45	13	22	63	31	201	3,458	1,094

표 17. 전국 강도범죄자의 연도별 범행시 정신상태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정신상태별	정 신 장 애							
		계	정 상	소 계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	주취	월경시 이상
계		29,520(100)	25,204(85.4)	191(0.6)	75	14	102	4,121(14.0)	4
2001		5,547	4,695	32	14		18	818	2
2002		5,453	4,573	28	12	3	13	852	
2003		6,970	5,981	41	15		26	948	
2004		6,466	5,560	46	21	6	19	858	2
2005		5,084	4,395	44	13	5	26	645	

## 2. 대구지역 침입강도범죄 분석

### 1) 대구지역 일반현황 및 강력범죄 등 발생 분석

대구광역시의 면적은 884.46 km<sup>2</sup>로, 전국토의 0.9%에 해당하고, 인구(외국인 포함)는 252여만명으로 남자가 다소 많으며 (남1,261,391명, 여1,251,828명)<sup>6)</sup>, 주택현황은 전체 720,493호 중 아파트가 379,528호(52.7%)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단독주택으로 196,725호(27.3%), 다세대주택 114,203호(15.9%), 연립주택 8,757호(1.2%)이며, 비거주용 주택이 21,280호(2.9%)로서 대구시의 주택보급률은 87.2%를 보이고 있다<sup>7)</sup>.

대구지방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자료분석결과 2001~2006년 까지 6년동안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3,943건으로 연평균 657 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강도범죄는 1,506 건으로 연평균 251 건이 발생하여 전체 강력범죄의 약 38.2%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강도범죄(1,506 건)중 침입강도범죄는 515 건(34.2%)으로 연평균 약 86 건이 발생하였다(표 18).

표 18. 대구지역 연도별 강력강도·침입강도 발생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죄종별	강력범죄	강도범죄	침입강도
		계	3,943	1,506(38.2)
2001		635	252(39.7)	91(36.1)
2002		637	267(41.9)	77(28.8)
2003		636	271(42.6)	80(29.5)
2004		703	267(37.9)	79(29.6)
2005		711	242(34.0)	101(41.7)
2006		621	207(33.3)	87(42.0)

### 2) 대구지역 연도별 강도범죄 검거현황 분석

같은 기간 (2001년~2006년)동안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강도범죄(1,506 건)중, 검거건수는 1,525 건(101.3%)이고 검거인원은 1,714 명으로 연평균 검거건수 254 건, 검거인원은 286 명이며, 이 중 여성 범죄자도 71 명(2006년도 제외)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검거건수가 발생건수보다 많은 것은 타지역에서 발생한 강도범인을 대구경찰이 검거하였을 경우, 그 검거건수는 대구경찰이 검거한 것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표 19. 대구지역 연도별 강도사건 발생 및 검거현황.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남/여)
계	1,506	1,525	101.2	1,714
2001	252	255	101.2	363 (349/14)
2002	267	305	114.2	300 (285/15)
2003	271	300	110.7	269 (259/10)
2004	267	274	102.6	283 (279/4)
2005	242	195	80.2	291 (263/28)
2006	207	196	94.7	208 (미 상)

### 3) 대구지역 각 구·군별 강도범죄 발생현황 분석

같은 기간 동안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각 지역(구)별 강도범죄 현황은 (표 20)과 같이, 인구 약 60만명인 달서구에서 347 건(23.1%)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인구 40만명 이상인 수성구와 북구가 각 231 건(15.3%), 219 건(14.5%)이 발생하였고, 서구 203 건(13.5%), 남구 192 건(12.7%), 동구 187 건(12.4%), 중구 99 건(6.6%), 달성군 28 건(1.9%)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침입강도 515 건 중 각 지역(구)별 발생현황은 (표 21)과 같이 달서구에서 가장 많은 100 건(19.4%)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 수성구가 91 건(17.7%), 동구 84 건(16.3%), 북구 70 건(13.6%), 서구 63 건(12.2%), 남구 59 건(11.5%), 중구 38 건(7.4%) 순으로 발생하여, 각 지역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도농복합지역인 달성군이 10 건(1.9%)으로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대구지역 연도별·구(군)별 강도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지역별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계	1,506(100)	99(6.6)	187(12.4)	203(13.5)	192(12.7)	219(14.5)	231(15.3)	347(23.1)	28(1.9)
2001	252	17	35	35	45	28	38	50	4
2002	267	14	27	46	41	31	43	60	5
2003	271	15	47	21	27	51	39	67	4
2004	267	20	23	44	28	54	30	64	4
2005	242	15	21	34	37	38	42	53	2
2006	207	18	34	23	14	17	39	53	9

표 21. 대구지역 연도별·구(군)별 침입강도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지역별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계	515(100)	38(7.4)	84(16.3)	63(12.2)	59(11.5)	70(13.6)	91(17.7)	100(19.4)	10(1.9)
2001	91	7	19	7	16	9	15	15	3
2002	77	5	10	3	7	24	7	20	1
2003	80	9	26	8	6	7	14	10	—
2004	79	7	4	13	10	11	11	20	3
2005	101	3	13	12	12	16	20	23	2
2006	87	7	12	20	8	3	24	12	1

표 22. 대구지역 침입강도범죄 시간대별 발생현황. (단위 : 건(%))

연도별 \ 시간별	계	심 야 00:00~04:00	새 벽 04:00~07:00	오 전 07:00~12:00	오 후 12:00~18:00	저 녀 18:00~20:00	밤 20:00~24:00
계	515(100)	194(37.7)	87(16.9)	70(13.6)	93(18.0)	19(3.7)	52(10.1)
2001	91	43	7	9	17	2	13
2002	77	40	8	8	10	1	10
2003	80	20	12	16	19	4	9
2004	79	25	11	15	17	5	6
2005	101	35	28	15	13	2	8
2006	87	31	21	7	17	5	6

표 23. 대구지역 침입강도범죄의 연도별·장소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 장소별	계	주택	아파트	편의점	주점	여관	상점	사무실	식당	기타 미상
계	515(100)	223(43.3)	36(7.0)	37(7.2)	30(5.8)	11(2.1)	67(13.0)	24(4.7)	13(2.5)	74(14.3)
2001	91	36	6	—	8	—	20	10	1	10
2002	77	34	9	—	8	2	12	3	—	9
2003	80	30	8	—	3	2	14	9	1	13
2004	79	42	2	5	3	2	7	—	3	15
2005	101	43	3	20	4	4	7	2	3	15
2006	87	38	8	12	4	1	7	—	5	12

\*기타는 금융기관, 종교시설, 주유소, 미용실, 학교, 공장, 풍속업소, PC방, 다방, 유키장 등

4) 대구지역 침입강도범죄의 시간대별 발생현황 분석

같은 기간 동안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침입강도범죄의 시간대별 발생현황은 (표 22)와 같이 전체 침입강도범죄 (515건) 중 심야시간대(00:00~04:00)에서 194 건(37.7%)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오후시간대(12:00~18:00) 93 건, 새벽시간대(04:00~07:00) 87 건, 오전시간대(07:00~12:00) 70 건, 밤시간대(20:00~24:00) 52 건, 저녁 시간대(18:00~20:00) 19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대구지역 침입강도범죄의 장소별 발생현황 분석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침입강도범죄의 장소별 발생현황은 (표 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침입강도범죄 (515 건) 중 주거침입강도가 259 건 (50.3%)으로 가장 많았고, 상점 64 건, 편의점 37 건, 주점 30 건, 사무실 24 건, 식당 13 건, 여관 11 건 순이었으며, 풍속업소, 주유소, PC방, 유키장 등 기타 장소에서 74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대구지역 주거침입강도범죄의 침입구 및 침입방법 분석

주거침입강도범죄(259 건)의 침입구와 침입방법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표 2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강도 범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침입구는 출입(현관)문으로 87 건 (33.6%)이었고, 그 다음이 창문 33 건, 담 19 건, 베란다 15 건 순이었으며, 기타 침입구가 105 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침입구 중에는 부엌문, 뒷문 등도 일부 있으나 피해자들이 잠든 틈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침입방법은 (표 2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문단속이 없는 (열려있거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것이 65 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배원·가스검침원 등 방문자로 가장하여 침입한 것이 20 건, 담을 넘고 침입한 것이 19 건, 출입(현관)문이나 창문 등을 부수고 침입한 것이 16 건, 시정된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고 침입한 것이 13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침입한 것이 6 건이었으며, 기타 침입방법이 120 건으로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했

는 이것 역시 침입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침입강도범죄가 피해자들이 잠든 심야 또는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침입방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7) 대구지역 침입강도범죄 중 성폭행(강간)을 동반한 범죄 분석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침입강도범죄 (515 건)중 성폭행을 동반한 사건은 (표 2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60 건 (11.7%)이었는데, 이 중 일반주택에서 38건, 연립·다세대주택에서 9 건, 아파트에서 2 건 등 49 건 (81.7%)이 주거침입강도범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외 주점에서는 6 건, 여관·미용실 등 기타 장소에서는 5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 대구지역 침입강도범죄의 범행도구 분석

침입강도범죄의 범행도구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표 27)과 같이 515 건의 침입강도 범죄 중 약 절반가량인 254 건 (49.3%)에서 범죄자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칼(가위 3 건 포함)을 사용하거나 휴대하였으며, 끈·줄·테이프 등을 이용한 경우가 37 건이었고, 각목·쇠파이프·몽둥이 등을 이용한 것이 14 건, 병 7 건, 공기총·가스총 등 총기류가 5 건 이었으며, 그 외 기타가 198 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는 염산, 드라이버, 망치 등 특별한 범행도구를 사용한 것도 소수 있었으나 대부분은 범죄자가 특별한 범행도구를 소지하지 않고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거나, 피해자가 범행도구를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여 알 수 없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가 여러 가지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을 경우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범행에 대표적으로 사용된 범행도구 한가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24. 대구지역 주거침입강도의 침입구 현황 (2001~2006). (단위 : 건(%))

계	침입구	출입문 (현관문)	창문	베란다	담	기타·미상
259 (100)	87 (33.6)	33 (12.7)	15 (5.8)	19 (7.3)	105 (40.5)	

표 25. 대구지역 주거침입강도의 침입방법 현황 (2001~2006). (단위 : 건(%))

계	침입방법	문단속없음	출입문,현관문, 창문 부수고	택배원 등 방문자로서가장	담을넘고	시정장치 열고	피해자를 뒤따라	기타 미상
259 (100)	65 (25.1)	16 (6.2)	20 (7.7)	19 (7.3)	13 (5.0)	6 (2.3)	120 (46.3)	

표 26 . 대구지역 연도별·성폭행 동반 침입강도 현황 (2001~2006). (단위 : 건(%))

연도별	장소별	계	일반주택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점	기타 (여관,미용실등)
계	60(100)	38(63.3)	9(15.0)	2(3.3)	6(10.0)	5(8.3)	
2001	9	8			1		
2002	11	10				1	
2003	7	5			1	1	
2004	12	7	2		2	1	
2005	9	3	3		2	1	
2006	12	5	4		1	1	

표 27. 대구지역 침입강도의 연도별 범행도구 현황. (단위 : 건(%))

연도	범구 계	칼(가위)	끈,줄,테이프, 전선,혁대	각목,쇠파이프, 몽둥이	병	총 (공기총,가스총)	기타(주먹,발 불상,무소지)
계	515(100)	254(49.3)	37(7.2)	14(2.7)	7(1.3)	5(1.0)	198(38.4)
2001	91	46	5		1	2	37
2002	77	51	4	4	1		17
2003	80	40	8	2	1	1	28
2004	79	37	6		1	1	34
2005	101	43	10	4	2	1	41
2006	87	37	4	4	1		41

### IV. 고 찰

통계자료를 토대로 전국 강도범죄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강도범죄는 모두 29,892 건이었으며, 이를 지역별(시·도별)로 살펴보면,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서울특별시(9,982 건)와 경기도(5,849 건)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인구 200만 명이 하인 울산(582 건), 강원(473 건), 충북(646 건), 전북(569 건), 제주(280건)가 하순위로 나타난 것을 보면 강도범죄발생이 인구수와 다소 비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인구수에서 서울(10,356,000)보다 많은 경기도(11,106,000 명)가 강도범죄 발생에서는 서울의 58.6% 수준에 있는 것을 보면 강도범죄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서 많이 발생하는 ‘도시형범죄’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대구지역 각 구(군)별 침입강도 발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21 참고).

강도범죄의 수범에 있어서 종전의 연구자료<sup>5)</sup>에 의하면 노상강도(39.7%)가 침입강도(26.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5년 동안의 분석결과에서는 침입강도(28.8%)가 노상강도(21.8%)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계(설문)대상 및 방법상의 차이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심<sup>5)</sup>의 강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통계는 전국 6개 교도소의 재소자 903 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나타난 자료이다.

강도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심야시간대 (00:00~04:00)로서 전체의 30.0%를 차지하였는데, 이 같은 현상은 대구지역 침입강도범죄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강도범죄 피해자의 신체피해 현황과 피해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강도범죄(29,892건)에서 신체적 피해(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망자(260 명)를 포함하여 10,870 명이었

며, 상해정도가 확인된 8,723명의 피해자 중에서 절대다수인 6,297 명(72.2%)이 전치 2주이하의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강도범죄자가 실제 상대방(피해자)에게 공격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제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sup>8)</sup>.

강도범죄의 요일별 발생현황 분석결과에서 수요일이 5,652 건(19.0%)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었고, 일요일은 2,988 건 (10.0%)으로 수요일의 절반가량 발생되었으며, 그 외 월·화·목·금요일은 12~14%의 일정한 발생율을 보였는데, 토·일요일에 강도범죄 발생이 비교적 적은 이유는 토·일요일을 맞아 가족들이 주거지에 함께 모여 생활하거나, 기타 가족단위 활동이 많음으로써 범죄자들이 범행에 장애를 느껴 범행을 포기하거나, 기타 보호장치에 의하여 범행대상이 줄어 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강도범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침입강도(28.8%)에 있어서 침입구 및 침입방법을 분석한 결과 침입구는 출입문이 64.3%로 가장 많았고, 침입방법은 문단속이 없는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는 것이 39.3%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구지역 침입강도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대구지역 침입강도의 침입구도 출입문이 33.6%로 가장 많았고, 침입방법 역시 문단속이 없는 출입문 또는 창문으로 침입하는 방법이 25.1%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표 25)에서 기타·미상에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침입강도범죄에 있어서 주로 심야시간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 침입구나 침입방법을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실제로는 문단속이 없는 출입문이나 창문으로 침입한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침입강도범죄자는 문단속이 없는 출입문 또는 창문을 통하여 가장 많이 침입한다는 것과, 문단속만 잘 하여도 상당수의 침입강도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도범죄자의 공범관계를 분석한 결과 종전의 연구자료<sup>9)</sup>에 의하면 단독범행을 하는 경우는 15.3%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인 84.7%가 집단적으로 강도를 행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6.1%가 단독범행이었고, 43.9%가 2명 이상 공범의 형태로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그 이유는 강도범죄자(재소자) 411명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자료이고, 본 연구에서는 2001년~2005년 까지 5년동안 검거된 강도범죄 26,751건에 대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로 생각된다.

강도 범죄자의 범행도구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 검거된 강도범죄 26,751건 중 범행도구를 소지하지 않고 범행(주먹과 발로 폭행·협박)한 것이 15,631건(58.4%)으로 가장 많았고, 범행시 사용한 범행도구 중에는 칼을 사용한 것이 6,498건(24.3%)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칼이 우리 생활주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다른 범행도구에 비해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운반, 소지, 사용이 용이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대구지역 침입강도범죄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표 27).

강도범죄자의 범죄경력을 보면 5년동안 검거된 강도범죄자 29,520명 중에서 초범은 9,631명(32.6%)이었고, 2범 이상 전과자는 19,889명(67.4%)으로 전과자에 의한 범행이 2배가량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강도범죄에 있어서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절대다수인 21,118명(71.5%)이 타인이었고, 그 외 친구, 애인, 거래상대방, 이웃, 직장동료, 고용자와 피고용자 등 특정한 관계에서도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침입강도 515건 중, 성폭행을 동반한 사건은 60건(11.7%)이 있었으며, 이 중 49건(81.7%)이 주거침입강도범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범죄자가 사전 정보에 의거 여성 피해자 혼자 있는 주거지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또 선정된 주거지에 일단 침입하고 나면 도시의 주거 특성상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해 발각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강도범죄자가 강도범행에 연장하여 그 피해자인 부녀를 강간하는 경우를 법률상 강도강간이라고 하는데, 강도범(혹은 절도범)이 강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동기를 살펴보면, 대개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강간을 저지르

지만, 다른 동기에서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첫째, 피해자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둘째,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셋째, 피해자의 복장상태가 범인으로 하여금 성충동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sup>9)</sup>.

강도범죄자(29,520명)의 범행시 정신상태를 보면 대다수인 25,204명(85.4%)가 정상적인 정신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강도범죄자가 평소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감행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강도범들은 돈의 필요에 의해 범행을 결심하게 되고, 범행을 결심하고 나면 취득해야할 돈의 양, 철폐의 위험, 피해자가 될 사람의 취약성 및 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이 정해지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언제, 어떻게 범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계획한 후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범행을 감행하게 된다.

이러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범죄가 어떤 요소에 의해서 발생되는지를 알고, 그 발생요소를 제거하면 자동적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범죄요소에 대해서 Cohen과 Felson은 개인이 가지는 범죄적 욕구와 욕망, 그리고 필요성 등을 복합적으로 정리하여 범죄의 요소를 크게 세가지로 요약하였는데, 첫째, 범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당한 표적(Suitable Target, 적당한 표적이란 범죄자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범행대상을 말한다)이나 먹잇감이 있어야 하고, 둘째, 활용 가능한 보호장치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보호장치란 주로 경찰이나 집주인, 친구, 가족, 보호자 등을 말하며, 범죄자가 범행대상을 공격하려 해도 그 주변에 이들을 보호하는 사람이나 집단 또는 장치가 있다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가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있어야 하며, 셋째, 범죄를 일으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가해자(Motivated Offender, 아무런 보호장치나 보호자가 없는 좋은 조건에 놓여있는 범행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가진 가해자가 없다면 범죄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가 있어야만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sup>10)</sup>.

이러한 관점에서 강도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살펴보면 먼저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도(強盜)가 목적으로 하는 금품이나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능한한 직접 소지 또는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벨이나 경보장치 등 보안시스템 설치를 확장하여 이웃·경찰 등 주변과의 비상연락체제를 갖추는 등 보호장치를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하며, 평

소 출입문이나 창문 등 범인의 침입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 등 자위방법체제를 구축하고, 경찰력을 범죄 취약 시간대나 취약장소에 집중 배치하는 등의 치안 시스템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를 일으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가해자(Motivated Offender)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으나, 이들에 대한 범행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절대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강도범죄자의 67.4%가 전과1범 이상의 범죄경력자에 의한 범행으로 나타난 분석 결과에서 볼 때, 행형제도 및 형사법 체계의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대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통계의 특성과 범죄신고율<sup>1)</sup>(2005년도 강도범죄 피해자 신고율은 63.0%로 나타남)을 감안할 때 실제범죄량에 유사한 하나의 지표일 뿐 실제 범죄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 V. 요약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은 모두 29,892 건으로 연 평균 약 5,978 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법은 침입강도가 8,605 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침입구는 출입문이 4,031 건(6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침입방법은 문단속이 없는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것이 2,462 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발생시간은 심야시간대(00:00~04:00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 보면 수요일이 5,652건으로, 일요일(2,988건)의 약 2 배가량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망 260 명, 상해 10,610 명으로 나타났으며, 발생장소는 노상(路上)이 10,183건(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거지로서 7,527 건(약25%)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관계는 단독범이 15,012 명(56.1%)으로 가장 많았고, 범행시 범행도구는 소지하지 않음이 15,631 건(58.4%)으로 가장 많았으나, 소지한 범행도구 중에는 칼이 6,498 건(24.3%)으로 가장 많았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강도범죄는 모두 1,506 건으로 연평균 251 건이었으며, 이중 침입강도 사건은 515 건(34.2%)으로 연평균 약 86 건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시간은 역시 심야시간대(00:00~

04:00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194 건, 37.7%)하였고, 침입장소는 주거지(259 건, 50.3%)가 가장 많았으며, 침입구는 출입문(87 건, 33.6%)이 가장 많았고, 침입방법은 문단속이 없는 출입문이나 창문으로 침입한 것이(65 건, 25.1%)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택배원 등 방문자로 가장하거나 피해자를 뒤따라 침입하는 수법도 26 건(10%)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대책은 물론, 개인의 자위 방법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침입강도 범죄자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가장 많이 침입한다는 분석결과를 볼 때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이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문단속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임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방법조차 실행하지 않아 강도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그것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강도범죄의 실태를 참고하여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강도범죄의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줄어 들었으면 한다.

최근 과학수사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향상에 따라 경찰기관에서도 범죄분석요원, 피해자심리상담요원, 검시관 등을 특별채용하여 각 종 범죄분석 등 과학수사의 발전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범죄예방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경찰청, 경찰백서, 2006
2. 안황권 · 김상돈, 범죄피해자학, 백산서당, 2003, p16~17
3. 이윤호, 범죄학 개론 강의자료-범죄유형론
4. 경찰청, 범죄분석 연보, 2001~2005
5. 심영희, '강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2호, 1991 ; (2) : p149~219
6. 통계청, 2006년 자료
7. 대구광역시청, 주택통계 연감, 2005
8.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2006년 11호, p46
9.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강간범의 특성, 1997
10. 최영인 · 엄건령, 피해자의 책임성과 범죄 피해자화 이론, 백산출판사, 2005, p135~136